

서울시, '돌봄서비스' 민간 주도 전환... "지원·관리 역할"

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 발표 생태계 구축에 5년간 8786억 투입 일각선 서비스 기능 약화 우려도



서울시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을 통해 직접 제공해왔던 공공 돌봄 서비스를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공공의 역할을 기존 '서비스 직접 제공'에서 '민간 지원·관리·육성'으로 전환키로 한 것이다. 공공의 돌봄 서비스 제공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9일 '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공공의 역할을 종전 '돌봄 직접 제공'에서 '민간 사회 서비스 기관·시설 지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서사원을 통해 민간기관을 지원해 사회 서비스의 질을 향상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공공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민간시설 육성이나 서비스 연계·조정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는 공공의 역할을 '직접 서비스 제공'에서 '민간 지원'으로 전환, 시민들의 복잡하고 이질적인 돌봄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을 육성·관리해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돌봄 전담 지원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시복지재단내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내달 문을 여는 사회서비스지원센터는 ▲민간 지원 ▲돌봄 수요·공급 분석을 통

한 서비스 공백 파악, 서비스 간 조정·연계안 제시 ▲미래 돌봄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돌봄 서비스 발굴 ▲서울시 돌봄 정책 수립 지원 등의 임무를 하게 된다.

'서사원을 해산하고 민간 지원 중심으로 공공 돌봄의 방향을 전환한데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것 이냐'는 질문에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사원이 공공성을 가지고 민간에서 하지 못했던 돌봄을 제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5년이 지난 시점까지 실질적으로 사각지대를 없애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정상훈 복지실장은 "또 민간에서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을 지원·관리하는 기능 자체는 아예 업무도 내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서사원을 통해서 하던 공공의 역할보다는 민간에서 잘할

수 있도록 민간기관을 지원·관리하는 역할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충분한 돌봄 제공과 안전한 돌봄 생태계 구축에 5년간 878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시는 돌봄 전문 상담 콜센터인 '안심돌봄 120'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은 다산콜센터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사로부터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화로 이해가 어렵거나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돌봄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시는 어르신·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돌봄통합지원센터를 가동할 계획이다. 내년 개관하는 돌봄통합지원센터는 이용자 수요에 맞는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추석 차례상, 시장 24만원·마트 29만원 소요” 용인특례시,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전통시장, 마트에 비해 17% 저렴 가락시장 내 가락물 21만원 소요



지난 8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시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에서 추석 차례상을 준비할 때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약 24만원, 대형 마트에서는 29만원정도가 들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서울시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가락시장(가락물) 총 25곳을 대상으로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올해 대형마트 구매 비용은 평균 28만8727원으로 전년 대비 8.4% 상승했다. 전통시장은 평균 24만 785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7.4% 올랐

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에 비해 17% 정도 저렴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가락시장 내 가락물의 경우 20만 9038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에 차례상 준비가 가능했다. 가락물은 대형마트

(8.4%) 대비 구매 비용 상승률(3.2%)이 높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보다 차례상 차림비가 27.6% 저렴했다고 공사는 덧붙였다. 조사 결과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보정·둔전 등 8개 상권 지정 추진

용인특례시는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의 활력 증진을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확대하고 집중육성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월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이 상업지역의 경우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과 상권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상점가로 등록된 어정가

구단지의 경우 상점가 등록 7개월여 만에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70억원으로 크게 늘어 경기도 내에서 3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고객 유입 증가와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시는 보정, 풍덕천1동, 둔전 등 10개 골목상권에 현장 조사를 통해 구획설정과 상권조사가 완료된 8개 상권에 대해 2025년 상반기 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 상인회와 협력해 구역 내 점포들의 관심을 높이고 지원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지역 상인회와 협력해 현장 컨설팅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윈스톱 지원 체계 구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용인(경기)=유진재 기자 yujin@

서울시 131개 정체구간 손본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시내 주요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 소통 개선을 위해 신호 체계를 변경했다고 9일 밝혔다.

시와 서울경찰청은 올 4월 '상습 교통 정체 지점 개선 TF 회의'를 개최하고 대상 구간 131개를 선정했다. 시는 일차적으로 지난 7월까지 71개소의 신호 체계를 손질했다. 신호 체계 개선 효과 분석 결과, 평균 대기 행렬 길이가 9.3% 줄었고, 통행속도는 8.7% 상승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등과 이달 중 나머지 60개소에 대한 2차 신호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 지하철, 17~18일 121회 증회 운행

서울시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추진 서울시는 명절 기간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지하철은 귀경객이 집중되는 이달 17~18일 하루 총 121회 증회 운행, 익일 새벽 2시(마지막 열차) 종착역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연장 운영한다. 대상 노선은 1~9호선·우이신설선·신림선이다.

해당 기간 시내버스도 관내 3개 터미널(서울고속·센트럴시티, 동서울, 남부 터미널)과 5개 기차역(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청량리역, 수서역)을 경유하

는 124개 노선을 대상으로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심야 올빼미버스 14개 노선도 추석 연휴 기간 매일 오후 11시10분부터 다음날 오전 6시(노선별 상이)까지 정상 운영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립묘지 성묘객을 위해 오는 17~18일 용미리(774번), 망우리(201, 262, 270번)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4개 시내버스 노선은 일일 50회(용미리 경우 10회, 망우리 경우 40회) 증회 운행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포스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0 | 해질 18:48

9월 10일 (화) 음력 8월 8일

수도권 날씨 25~33°C

운동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빨래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세차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외출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서울 지하철 운행 현황

- 연천 22/32
- 동두천 23/32
- 백령도 22/28
- 파주 23/33
- 가평 22/33
- 서울 25/33
- 양평 22/32
- 인천 25/32
- 수원 24/33
- 용인 24/33
- 평택 23/3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트럼프 경제 키워드, 고관세·저세율·머스크
▲ 이스라엘, 시리아 중부 또 공습... 과학 연구시설과 무기고 폭격 /사진 뉴시스



▲ 프란치스코 교황, 파푸아뉴기니 정글 지대 도착... 구호품 가득 /사진 뉴시스
▲ "김정은 방문한 해군기지는 원산만 탐춘항...주요 기지 될 듯"

▲ TV토론 이틀 앞...해리스 '모의 토론' vs 트럼프 '정책 집중'
▲ "美 조지아주 고교 총격전 직전 용의자 모친 학교에 긴급 전화"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